

18세미만 접대부 술시중

10代전용 디스코장 운영

학교주변 여관 윤락알선

前복서 白仁鐵씨등 포함

개그맨 沈炯來씨등 84명은 입건

검 찰

또 미성년자를 자신이 경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개그맨 沈炯來씨(34)등 84명을 불수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.

검찰은 또 학교주변에서 구립삼동에서 유혹음식점 허가도없이 「탈렌트」라는 룸살롱을 운영하며, 李모양(17)등 미성년자를 접대부 로고용,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를 받고있다.

또 구속된 田炯基씨(36)는 서울東大門구長安동경남관광호텔3층에 1백20평규모의 「디젠시」라는 룸살롱을 차려놓고 18세미만 코텍「오디세이」지배인梁承業씨(32)는 미성년자 1만 5천명으로부터 5천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카드를 발급한 뒤 이들에게 술을 팔고 남녀짜짓기를 알선하는 등 성인들의 출입을 막은채 미성년자전용디스코텍을 불법으로 운영해